교육부

4월 9일

대한민국 학교, 최초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선생님과 학교, 교육청과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53 **2020 APRIL**

04 특별기획 ❶
온라인 개학 이렇게 준비합니다

20 삶과 교육
특수교사 힘 모아
온라인 수업모형 개발

56 교사상담실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교육부

학교는 늘 깨어 있어요!

학교온On

onschool.edunet.net

가정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자!

학교온On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온라인 학습 아이디어 공유

메뉴	주요 내용
오늘은 뭐하지?	전국 교사들이 제작한 일일 학습 안내 정보
학습활동 아이디어	생활지도, 교과서활용학습, 아이디어 공유
콘텐츠 찾기	교과 콘텐츠, 학습 사이트 및 실내놀이·운동 사이트 정보
온라인 학급방 개설·활용법	- '온라인 학급방 따라하기 채널', 질의응답(FAQ) - 교사 원격지원서비스(교사온) 연계 (3.11~13 시범운영, 3.16 정식운영)
시·도교육청 자료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 관련 가이드 및 매뉴얼

교사온溫

온라인 학습 원격지원 자원봉사단(3.16. 예정)

"체계적인 학습관리와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교육부

온라인학급방 '학교온(On)' 개통_3.12.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53 **2020 APRIL**

04

특별기획 ❶

온라인 개학 이렇게 준비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학일(3월 2일)을 → 3월 9일 → 3월 23일 → 4월 6일로 4차례 연기한 바 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조직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의 지원방안과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다.

27

특별기획 ❷

저의 이름은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배움의 길잡이 노릇을 해오고 있는 교과서는 국정-검정-인정도서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마다 자국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기본으로 인정교과서로 대응하고 있다. 서책형 교과서 외에도 2007년부터는 기존 교과서에 풍부한 학습자료와 관리 기능을 추가한 디지털 교과서가 제작되어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디지털 교과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서책형과 디지털,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대한민국 교과서이다.

04

2020 vol.453

Contents

Cover story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9일 고3, 중3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안산공업고등학교(교장 강병옥) 양지훈(사회) 교사가 온라인 개학에 앞서 빈 교실에서 시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기획

04 온라인 개학 이렇게 준비합니다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점검_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특성화고등학교 ⑤ 특수학교

27 저의 이름은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국정-검정-인정 교과서가 뭔가요?
교과서 집필에서부터 학생 손에 가기까지
대한민국 교과서의 변천사
우리들의 학습 친구, '디지털 교과서'

16 꿈이 영그는 현장
통합교육 중점학교_ 제주 삼성초
장애·비장애 뛰어넘는 행복한 어울림

20 삶과 교육
전국특수교육교사연구회 셋업(SET-UP)
특수교사 힘 모아 온라인 수업모형 개발

24 찰칵

38 정책을 말하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42 초점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육기부'

46 교육자치시대
경기도교육청 '연계형 혁신학교'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로 연계하는 혁신교육

49 이달의 교육뉴스
올해 수능, 2주 미뤄 12월 3일 시행 外

52 교육 소확행
붕어쌤의 생활교육 특강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54 이야기 인문학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56 교사상담실
저작권③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60 통계로 읽는 교육
대한민국 교실 속 학생 수는?

62 명예기자 리포트
'긴급돌봄'이 이뤄지는 현장 속으로 外

발행일 2020년 4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양서연 주무관 박형민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 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글 이순이 편집장

- ○ 4월 9일 이후 중3·고3부터 순차적 학사일정 시작
- ○ 관계 기관과 MOU 체결,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 ○ 향후 원격·출석 수업 병행, 학사운영 탄력적으로

1 _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 _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모습

3 _ 충남교육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 생중계 현장 (사진제공: 충남교육청 공보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정되었던 개학일(3월 2일)을 → 3월 9일 → 3월 23일 → 4월 6일로 4차례 연기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는 예방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한편,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학습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격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것이다.

탄력적 학사운영 및 원격수업 도입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규 수업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먼저, 교육부는 원격학습을 통한 정규 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하고,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 성적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 왔다. 학교·지역·교과·학년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1]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 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 • 강의+활동형 학습 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표2]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점검

구분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초·중·고 및 특성화고	•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 교육부(5만 대), 학교·교육청(23만 대), 기업(3만 6천 대) 등 31만 6천 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에 무상 대여 • 교육사이트 접속 시 데이터 무제한 :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EBS 등 • 온라인 플랫폼 무상 제공 : 에듀테크 기업 원격교육에 필요한 기술지원 •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온' 운영 : 교사 181명 참여, 교사 원격수업 지원 • 490개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시·도교육청별 커뮤니티 공유(위두랑) • IT 인프라 취약한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경우 학교시설 활용 가능 • (직업계고) 기간집중이수제 활용하여 전공 교과 이론수업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등교 이후로 • (초1~2) 스마트기기 활용이 어려운 초1~2학생은 케이블(EBS 플러스2), 지상파(EBS 2TV) 방송으로 학습 제공
특수학교	• 시·청각장애학생에 원격교육에 필요한 자막, 수어, 점자 제공 • 발달장애학생에 원격수업과 순회(방문)교육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 운영

온라인 개학은 4월 9일(목)에 고3/중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4월 16일(목)에 고1~2/중1~2/초4~6학년을, 마지막으로 4월 20일(월)에 초1~3학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과 출석 수업의 병행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온라인 개학 일정(4월)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단장 교육부 차관)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한다. 준비·점검팀은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개학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모든 학교와 교사는 4월 1일부터 원격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원 자체 연수와 원격교육 플랫폼 선정·테스트 및 학생 원격수업 준비상황 점검 등 본격적인 원격수업 준비에 들어갔다. 학년별로는 개학일부터 2일을 원격수업 적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하는 등 본격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한다.

01 온라인 개학 이후 맞춤형 지원과 학습격차 완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만큼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19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747,219명, 중학생 1,294,559명, 고등학생 1,411,027명, 특수학교 학생 수 26,044명, 각종학교 8,809명에 달한다. 이들 학생이 동시에 원활하게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1인 1 스마트기기 확보와 함께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춰져야만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의 추가 보급분 5만 대, 삼성전자, LG전자에서 후원하는 3만 6천 대 등 총 31만 6천 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이미 스마트기기 대여 희망 여부를 파악 중에 있으며,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춰 각 가정에 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등의 교육사이트 접속 시 통신 요금 걱정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스마트기기 활용에 미숙한 초등학교 1~2학년은 케이블(EBS 플러스2) 외에 지상파(EBS 2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 수학은 물론,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까지 방송 준비 중이다.

가정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학생은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직업계고에서는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전공 교과 이론수업을, 등교 이후에는 실습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가 취약하고 IT 기기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해 원격수업에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방문)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운영(4.6.~)한다.

02 교사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선 교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서는 원격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490개의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위두랑(http://rang.edunet.net)에 17개 시·도교육청별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다.

181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온'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등도 위두랑 커뮤니티, 개학준비추진단 등에 공유하여 원격수업 운영 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 교사의 헌신과 노력 필요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육계는 5주간의 신학기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의 도입, 온라인 개학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한국의 우수한 교사들이 지금처럼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기에 학부모님들도 교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lementary School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점검 _ ① 초등학교

어서와,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지?

글 박성호 명예기자(대구포산초등학교 교사)

대구포산초등학교(교장 김정희)는 3월 2일부터 휴업 기간 내내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 및 SNS(클래스팅) 활용은 물론, 전화로 매일 건강 상태 확인과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등을 하고 있고, e학습터의 콘텐츠를 활용 및 '학교가자.com' 등 현직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활용한 가정 학습 안내도 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 전에 첫 번째 문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라포 형성이다. 그래서 반 전체가 사용하는 온라인 채팅방과 함께 온라인 쌍방향 소통을 위해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이 접속하여 서로 얼굴을 보며 첫인사도 나누고, 안부를 묻거나 오늘 해야 할 학습, 중요한 생활교육 내용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문제는 학생들이 학습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봄방학 때부터 거의 2달 동안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들은 각각 다른 생활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등교하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 8시 30분에 게시판에 댓글달기 등 가벼운 활동에 이어 9시에는 Zoom으로 접속하여 서로 안부를 물으며 온라인 학습 안내를 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과연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 것인가이다. 어떤 내용(콘텐츠)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플랫폼)라는 학습적인 부분과 함께 개학은 곧 수업 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만약 학습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

동 학년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한 과목과 단원을 앞에 배치하고 교과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올리기도 하였다. 1, 2학년들은 EBS 방송과 가정학습 자료 위주로 원격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나 돌봄 교실에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 학년별로 8명이 넘지 않는 학생을 각각 다른 교실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실과 교사들을 배정하였다.

우리 반의 온라인 학교생활

8시 50분부터 Zoom 쌍방향 화상 수업이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번갈아 활용하여 하루를 시작한다. 영상이 중요할 때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서로의 안부를 나눌 때는 Zoom을 활용하였다. 가끔은 우리 반 학생 목소리를 듣기 전에 어머니가 아이를 깨우는(?) 다소 민망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음소거 기능을 사용하여 모두 모인 후 일시에 음소거를 해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루 동안의 학습은 구글 G-suite에 안내되어 있다. 1~6교시까지 활동내용들과 학습지, 보조자료와 함께 수업 영상이 시간별로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은 e학습터에 올려서 이수 및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는 클래스팅이나 게시판에 올린다.

교사가 만든 수업 영상을 시청하기도 한다. 유튜브에 일부 공개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보고, 질문을 댓글 창에 남기면 교사가 이에 대해 댓글로 설명해 준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이다. 만약 온라인 개학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 학생은 결석일까, 지각일까? 개학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이라서 의외로 학급에서 가장 소외되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이 학생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교사는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표정조차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매일 3~4명의 모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라도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고민과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선생님의 말처럼 "결국 교사들은 헤쳐 나갈 것이다." 아니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헤쳐나갈 것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이 접속하여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눈 후, 온라인 학습 안내가 이뤄졌다.

Middle School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점검 _ ② 중학교

‘온라인+배움중심’수업 새로운 도전기

글 김인순 명예기자(장흥장평중학교 교장)

‘올해 수업 폭망이다.’ ‘매일 학교에 나와 업무만 하고 있어 내가 교사인지 행정원인지 정체성이 헷갈린다.’ 겨우내 학생 배움중심수업을 해보겠다고 연수를 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야심차게 개학을 기다려온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터져 나오는 비명이다.

온라인 개학이 발표된 지 1주일을 지나오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전망을 본다. 매일 쏟아지는 지침과 대책 공문 홍수 속에서 교육청이 움직이고, 학교가 움직이고, 교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각종 영상 플랫폼들을 찾고, 온라인 수업 방법들을 매일 협의하고, 실험을 하고, 학년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밤에도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별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협의를 보면서 감동을 느낀다. 역시 대한민국 교사들이다. 저것은 벽, 좌절할 때 벌떡 일어나 희망을 찾고 실천하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지식만 기계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게 할 것인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추가로 학습활동지나, 실습 물품을 집으로 보내 실습 활동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어떻게 학생 배움중심수업을 놓치지 않을지 서로 만든 학습안을 공유하기도 한다.

“PPT와 수업진행 원고를 1차시 만들어보았네요. 프로그램 사용법 익히다가 정작 해야 하는 수업의 질이 낮아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플랫폼으로 하고 EBS 온라인클래스에서 교사인증 가입하면 모든 영상이 다운로드가 되니까 필요한 거 끌어다 쓰고, 과제제시 또는 퀴즈 형식으로 제출하게 해서 출석 확인하기로 했어요.”

교장들도 바쁘다. SNS를 통해서 각 학교의 소식을 나누면서 막막했던 매듭을 풀어내고 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화상 회의를 개최해서 각 학교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화상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학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결과는 아이들과 온라인 개학을 해보면 검증되겠지만, 그때 나오는 문제점은 그때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High School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점검 _ ③ 일반고등학교

온라인 개학 집단 지성으로 극복!

글 김광일 명예기자(경북 형곡고등학교 교사)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뒤, 고등학교 현장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눈앞에 닥쳐온 온라인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에 교사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듯했다.

학교에서는 e학습터, 위두랑, 구글 클래스룸, EBS 온라인클래스 등 여러 원격교육 플랫폼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각 학교 실정에 맞게 플랫폼 선정이 이루어졌다. 학교는 휴업 기간 중 희망자에게만 배부했던 교과서를 학생 모두에게 배부하고, 수업 영상 제작을 위한 장소와 장비를 구매하는 등 원격수업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으며, 온라인 수업 운영 방법, 수업 영상 제작 방법, 실시간 쌍방향 회의 플랫폼 사용법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학교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구글 클래스룸 학교 계정 인증은 신청 폭주로 인해 승인이 지체되고 있고,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는 품절되거나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할 때 기술적 문제로 접속하지 못했을 경우 출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업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 학년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온라인 수업 시간표가 플랫폼 동시 참여자 수 제한 때문에 학급별 시간표로 급하게 바뀌는 등 시행착오도 계속 이어졌다.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 집단 지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학교에서는 숨은 능력자들이 속속들이 등장하여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오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다른 교사들에게 연수로 전달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웹캠을 대체할 수 있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출석부를 공유하면 편리해요.”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활발히 공유하며 결국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 운영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교사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 교사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에 큰 변화가 생기리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온라인만으로는 전할 수 없는, 학교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남으로만 가능한 것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느끼고, 학생들과의 만남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점검 _ ④ 특성화고등학교

전공 실무 연계 교육, 이론·실기 다 잡는다

글 양지훈 명예기자(안산공고 교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화면을 보고 오늘 배우게 될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인 안산공업고등학교(교장 강병욱)는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화학공업과, 디자인과, 컴퓨터과 등 총 6개의 전공과가 있다. 각 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공 교과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계획을 세웠다. 이에 1학년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공 기초 온라인 수업, 2학년은 전공 이론을 분석하는 전공 심화 온라인 수업, 3학년은 전공과 실무를 연계하여 실습 현장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공 실무 연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안산공고는 교실과 실습실에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쌍방향 수업(Zoom)에 생생하게 참여할 수 있다. 화면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 내용 설명과 질문 및 대화도 가능하다. 발표 시간도 계획하고 있다.
단, 실습 도구, 재료, 안전 관련 시설이 갖춰진 학교와 달리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으로 실습을 하기 어렵다. 이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서 먼저 온라인 가정학습으로 전공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 이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습이 필요한 경우, 전공과 교사가 실습실에서 시연하여 영상으로 제공하며, 등교가 이루어지면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할 예정이다.
김도수(컴퓨터과) 교사는 학교에서의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적인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김 교사는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많이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결손이 없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추후 고3 학생들이 현장실습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격 수업과 함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Special-Education School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점검 _ ⑤ 특수학교

장애유형별로 온라인 학습방 개설

글 이대송 명예기자(양산희망학교 교사)

현재 특수교육의 정보 교과 부재로 장애학생의 IT 기기 조작이나 활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이 별로 없는 상황에, 태블릿PC나 무선랜이 없는 등 대부분의 특수학교 여건도 열악해서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을 경험하지 못한 장애학생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원격수업 자체가 어렵거나 온라인 학습 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옆에 꼭 있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부모와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특수교육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개학에 앞서 시각장애(서울맹학교), 청각장애(서울농학교), 발달장애(양산희망학교) 3개 특수학교를 원격수업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국립특수교육원이 운영하는 에듀에이블 사이트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교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가정에는 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산희망학교(교장 정문자)는 원활한 온라인 개학을 위해 원격수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학습 및 평가, 온라인 시스템 등의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대부분 소통하게 되는 온라인 학급방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검토한 후 학부모와 학생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플랫폼을 선정하여 사전에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관련 직무연수를 필수로 이수하여 교사들의 역량을 높였다. 그리고 쌍방향 수업이나 콘텐츠 제공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수업 형태를 조사한 후 사전 테스트를 통해 온라인 학습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별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희망학교 꾸러미'를 통해 우편이나 택배로 스마트기기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장애학생의 원격수업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

Home Study

“얼른 학교 가서 선생님,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이승준 서울거여초4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니 안심이 돼요. 방학 중에도 온라인 가정학습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들었어요. 친구들과 채팅하면서 수업을 듣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지만 학교에 못 가는 건 아쉽긴 해요. 4학년 생활은 어떨지 기대되거든요.”

이원준 서울세륜중1

“학교에 얼른 가고 싶은데 속상해요. 방학 동안 EBS 라이브특강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재밌었지만 자꾸 보니 지겨워져요. 얼마 전에 교과서를 받으러 가서 처음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니 기술·가정 같은 새로운 과목이 생기는데 얼른 배워보고 싶어요. 학교에 가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시연 경기 고양백양고1

“보름 전에 학급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여전히 누가 누군지 몰라 서먹한 느낌은 들지만,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소식도 듣고 학습방 안내도 받아 EBS 실시간 강의를 꾸준히 듣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재밌는 놀이도 하고, 추억도 쌓잖아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조선영 세종 소담중1·3 학부모

“아이들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익숙하게 컴퓨터를 켜고 출석 체크를 하더라고요. 다만 수학 같은 경우 선생님께 질문해서 일일이 코칭을 받지 못하다 보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이들은 특히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을 좋아하는데 이런 실습 교과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못 만나서 속상해해요. 그동안 IT 기기는 최대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만 바라봐야 하는 점도 걱정이 되네요.”

미리 보는 온라인 개학

수업 전

- 8시 30분까지 출근, 교과 교사별 회의
- 8시 50분까지 온라인 수업 준비

1교시 - 온라인 개학식(고3 전교생)

- 온라인 채팅방에 개학식 동영상 업로드
- 함께 영상 시청 후 온라인 개학식에 대한 소감 댓글 달기(출석체크)

2교시 - 창의적 체험활동(고3 전교생)

- 온라인 에티켓·저작권 관련 정보통신교육 영상 업로드
- 함께 영상 시청 후 소감 댓글 달기(출석체크)

3교시 - 사회문화 (담당교사)

- 미리 촬영한 수업 영상 업로드(30분), 과제 제시
- (30분간) 함께 영상 시청하기
- (20분간) 영상 시청 후 각자 과제물 작성하여 제출, 질문은 댓글로

4교시 - 공강 (담당교사)

- 학생들 질문에 답변 달기, 5교시 수업 정비

점심시간

-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교실에서 점심식사
- 보호자가 준비해 준 집밥 맛있게 먹기

5교시 - 실용경제 (담당교사)

- 만18세 선거권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영상 준비
- 함께 영상 시청하고 과제물 제출하기

6~7교시 - 공강 (담당교사)

- 다음날 수업 영상 촬영 및 편집

경기도 양지고등학교 한은경(사회문화·실용경제) 교사의 하루

통합교육 중점학교_ 제주 삼성초

장애·비장애 뛰어넘는 행복한 어울림

오는 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 중점학교 '정다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정다운학교로 선정된 제주 삼성초등학교(교장 강정림)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본다.

글 양지선 기자

일상에서 장애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기르기 위함이다.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분리해 교육하는 것은 어쩌면 배려가 아니라 배제일 수 있다.

제주 삼성초등학교는 지난해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로 선정돼 장애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어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삼성초에 부임한 강정림 교장은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출신으로, 교직원이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았던 점은 정다운학교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 _ 교내 특수학급인 어울림반 안에는 실내 비디오 게임을 설치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했다.
2 _ 삼성초 학생들이 장애인식개선 활동으로 만든 작품들. 포스터 문구에 '우리는 하나'라고 적혀있다.
3 _ 교내 '어울림 음악회'에서 터치벨로 <바둑이 방울>을 연주한 어울림반 학생들

학교는 지난해 특수학급 2개 반을 운영, 총 14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등 개별적 특성을 가졌으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도 제각각 다양했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통합교육 덕분이었다.

지역사회 통합교육 지원 체계 구축

학교는 가장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른바 어울림통합교육 지원단에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야간학교, 사단법인 하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의 교내 특별공연, 장애이해 골든벨과 사생대회 등이 진행된 '탐나페스티벌' 참가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은 어울림통합교육지원단의 협력으로 가능했다.

교내에서 이뤄진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장애학생들의 꿈과 끼를 탐색하고 발산할 수 있는 '어울림 음악회',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한 통합체육수업 '어울림 스포츠', 학년별 장애인식개선 활동인 '배려와 공감의 어울림 활동'이 있었다.

어울림 음악회는 교내 특수학급 어울림반을 담당하는 권보경 교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기도 했다. 매주 금요일 1교시 특색교육시간, 어울림반 학생들은 터치벨을 연습했다. 터치벨은 버튼을 눌러 소리를 내는 종 모양의 악기로, 음계에 따라 색깔이 구분돼있다. 권 교사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터치벨 색깔대로 악보에도 색깔을 표시해 연습했다. 그는 "아이들이 처음에 음표를 모르고 박자 감각도 없다 보니 '과연 연주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막막했는데, 두 달 동안 꾸준히 동요 <바둑이 방울>을 연습해 무대에 선 것을 보니 뿌듯했다."라며 "교내 활동에서 장애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4

이런 기회가 소중한 경험이 된다."라고 전했다. 어울림 음악회에는 어울림반의 터치벨 연주와 더불어 6학년 학생들이 음악시간을 활용해 배운 수어 노래 공연과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하음'의 연주까지 더해져 풍성하게 꾸며졌다.

개별화교육·협력교수 실시해 학습 의욕 북돋워

장애학생들은 국어와 수학 교과의 경우 어울림반에서 개별화교육을 진행했고,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특히 사회 교과에서는 협력교수를 실시해 장애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수·학습 자료를 재구성했다. 협력수업은 한 학기에 한 번에서 월에 한 번, 주에 한 번씩으로 차근히 늘려가면서 학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했다.

통합체육수업인 '어울림 스포츠' 시간에는 지체장애학생 2명이 있는 3학년은 휠체어 컬링을, 통합교육에 관심이 많은 4학년은 장애인 정식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에 도전했다. 또, 어울림반에 몸으로 하는 실내 비디오 게임을 설치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은 또래 도우미를 자처해 장애학생이 이동할 때 도와주고,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친구를 위해 필기를 돕기도 했다. 어울림반에도 자유롭게 놀러와 보조 기구를 체험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울림반 내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춘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통합학급에서도 활용 가능한 교재·교구를 개발해 장애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웠다. 특색교육 시간에는 음악이나 음식을 이용한 활동으로 흥미를 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컴퓨터에 흥미를 보인 1학년 자폐장애학생은 꾸준한 타자연습을 통해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 참가했고,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권보경 교사는 "학생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고, 반 친구들에게도 '부족하고 못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있는 친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맞춤형 장애이해 교육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각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시간을 마련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했다. 교직원들은 연수를 통해 수시로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하고, 제주농아인협회와 연계해 배리어 프리 영화(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이 들어가 있는 영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대상으로는 한국난청협회를 초빙해 인공와우 체험과 보청기 귀본 뜨기 체험이 진행됐고, 자폐장애 관련 동화작가를 초빙해 학급책 만들기 활동도 실시했다. 장애학생 학부모를 위한 감정코칭도 진행해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긍정적인 행동 지원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초는 올해 통합학급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교사와 특수학급 교사가 함께 협력해 진행하는 수업과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한 통합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보경 교사는 "통합교육에 영향을 받는 모든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우리 모두 함께 차별 없는 세상' 지난해 어울림 활동을 통해 4학년 학생들이 만든 작품 속 메시지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

5

4 _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 _ 지난해 1학년 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 활동으로 스캔디아모스를 활용해 친구 얼굴 만들기를 했다.

6 _ 학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통합교육 지원 체계인 '어울림통합교육지원단' MOU를 체결했다.

6

전국특수교육교사연구회 셋업(SET-UP)

특수교사 힘 모아 온라인 수업모형 개발

지난 3월 한 달, '전국특수교육교사연구회' 셋업은 회원들이 힘을 모아 장애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믿는 사람들. 특수교육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겠다는 그들을 만났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SET-UP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공주특수교육지원센터 **이지원**
광명고등학교 **이다정**
광주선우학교 **윤혁**
군서중학교 **이미화**
남양주 덕소중학교 **이새결**
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윤현지**
부천상록학교 **고은수**
서울 중암중학교 **배래지**
서울 중화중학교 **강민주**
서울봉화초등학교 **이희경**
서울새솔초등학교 **박현경**
서울청량초등학교 **김윤진**
송우중학교 **한경화**
신길고등학교 **조현영**
신림중학교 **지정훈**
양산희망학교 **이대송**
은평대영학교 **최지혜**
의정부 송민학교 **정은지**
이평초등학교 **염지유**
전주인봉초등학교 **설성정**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송미경**
포천 추산초등학교 **김별**
해원학교 **백설아**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경증에서 중증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자료개발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죠. 학부모들께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직접 가정까지 학습지를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초·중·고·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개학이 4월 하순까지 순차적으로 연기됐다. 은평대영학교 특수교사인 최지혜 대표가 이끄는 '특수교육교사연구회' SET-UP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자체적으로 학습자료를 개발, 장애학생들의 온라인 원격수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SET-UP(이하 셋업)은 'Special Education Teachers Union Project'의 약자. 지난해 3월 창립된 이후 전국적인 단위의 특수교사 모임 1호로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셋업, 전국 특수교사들의 '즐겨찾기' 명소

셋업 네이버 블로그에는 3월 1일부터 매일 4차시씩,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료들이 탑재된다.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조회 수가 금세 5000회를 훌쩍 넘길 만큼 셋업 블로그는 요즘 특수교육 교사들의 '즐겨찾기' 명소가 됐다. 블로그 이웃도 한 달여 만에 3000명 이상으로 부쩍 늘었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교사들 사이에서는 특수교육 영역의 지평을 좀 더 넓히고,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자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셋업 창립 1년을 맞으면서 그러한 요청들이 이제 하나둘씩 구현돼 가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원격수업 자료들을 회원들의 자체적인 힘으로 개발하고 준비하면서 특수교육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연대, 열정까지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죠."

Special Education
Teachers Union Project

특수교육 환경에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남 양산희망학교 이대송 중등교무부장의 귀띔이다. 최 대표는 여기에 덧붙여 "이번에 특수교육 온라인 수업 자료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까지에는 이대송 선생님을 비롯한 선배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에 자체 제작한 셋업의 수업 자료들은 네이버 블로그 외에도 국립특수교육원, 온라인 학급방 '클래스팅(Classting)', '학교가자닷컴(학교가자.com)' 등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업과 함께 하는 '아침열기' 체조 "시작"

최지혜 대표를 만나 짧은 인터뷰를 진행한 지난 3월 26일. 셋업이 블로그를 통해 공유한 수업 자료는 1교시 국어(나의 문구생활_경북 봉화초 이희경 교사), 2교시 사회(세계 물의 날 알기_서울 중화중 강민주 교사), 3교시 수학(수 비교하기_중암중 배래지 교사), 4교시 여가(홈 카페, 더치커피 만들기_신길고 조현영 교사)로 각각 구성됐다. 최지혜 대표의 앞선 설명처럼, 4차시의 수업 모형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각각 선택해서 활용하면 된다.

또 이날 업로드된 '아침열기' 체조는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국민체조' 편. 아이들이 집에서 양학선·여서정 선수 등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국민체조를 따라 하며 건강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외에도 셋업이 소개하는 방대한 수업 자료들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극복을 위한 알차고 실용적인 정보들이 다양하게 탑재되고 있다.

1 _ 셋업을 이끌고 있는 최지혜 선생님
2 _ 특수교사들의 연수모습

셋업 일일 가정학습 자료(예시)

1교시 - 국어 : 감정과 마음 알기
공주특수교육지원센터 이지원 선생님

2교시 - 체육 : 의자를 활용하여 근력키우기
의정부 송민학교 정은지 선생님

3교시 - 사회 : 즐거운 여가생활
군서중 이미화 선생님

4교시 - 과학 : 물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광명고 이다정 선생님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댓글이나 개별적인 SNS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따끈따끈한 이용 후기가 올라옵니다.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할 때, 셋업 선생님과 함께여서 오늘 하루도 즐거웠다'는 댓글을 발견할 때면 특수교사로서, 또 셋업의 일원으로서 보람도 느껴지곤 하지요."

최 대표는 "특수교육 영역에서의 학습효과는 교사와 학생의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서 가장 극대화된다."라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 대해 더욱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높은 경증 장애학생과 비교하면,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그 아쉬움의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단다.

7개 분과에서 다양한 연구 중심 활동 전개

"셋업이 출범할 때 3가지 주요활동 목표를 정했었죠. 다양한 연구모임을 통한 특수교사들의 연구능력 향상이 그 첫 번째 지점이고, 둘째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주제로 매달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마지막으로 철저한 현장 중심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자는 것이었어요.

현재 셋업 회원들의 활동은 '교육과정, 독서교육, 그림책, 세계시민교육, 장애학, 연수연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7개 분과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세계시민교육 분과에서는 곧 '장애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내용으로 한 교재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환경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요즘 셋업이 특수교육의 온라인 수업모형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역량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특수교육 분야의 타 연구회와도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양질의 자료개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업은 매달, 특수교육 분야에 국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성과를 내는 현장의 교사들도 초청, '세움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매달 정규회원(46명)을 훨씬 웃도는 수의 교사들이 찾으면서 셋업을 대표하는 인기강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최 대표의 자랑이다. 최지혜 대표는 특히 4월에 순차적으로 단행되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분야의 장애학생들이 정보 활용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동안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들을 현장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도 함께 소개했다.

찰칵

올해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도 제기했었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모로 투표소에서 색다른 풍경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교육>에서는 4월 선거의 달을 맞아 '선거'를 주제로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찍어주신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5월의 주제는 **'선생님'**입니다.
eduzine21@gmail.com으로 많은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양지훈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작년에 통합사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참정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참정권에서 '선거'를 이해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선거'를 "선거날은 휴가 가는 날이 아닙니다.", "도장 하나가 미래를 정합니다." 등의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종승 포항제철초등학교 교사

앗 개표의 순간! 작년 제철초 6-2 후보자들과 개표자들의 긴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현숙 두암초등학교 사서

지난 선거 때 아이들과 투표 참여 홍보를 위해 만들어 본 선거 도장이에요. 빨간색이 인상적이라 저도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장에 새겨진 ㅅ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점 복(卜)자라고 해요.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선거는 꼭 참여해야겠죠? 나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연상 다정초등학교 교사

전교 학생회 1학기 선거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거가 끝나고 활발하게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런 날이 4월에는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성완 남지고등학교 교사

예비 유권자들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 후 모의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고3 아이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는 만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헌우 구미여자고등학교 교사

학생회장 당선을 위해 모든것을 내려놓고 필사적인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활용

유치원 학부모 부담 완화
+320억 원

휴업기간 연장에 따른 학부모 부담완화를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보통교부금
+2,522억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억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억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7억원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18억 원

온라인 강의를 위한
공용인프라 및 콘텐츠 지원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0년 추가경정예산 확정_3.17.

특별기획

저의 이름은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배움의 길잡이 노릇을 해오고 있는 교과서는 국정-검정-인정도서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마다 자국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서책형 교과서 외에도 2007년부터 기존 교과서에 풍부한 학습자료와 관리 기능을 추가한 디지털 교과서가 제작되어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디지털 교과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서책형과 디지털,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대한민국 교과서이다.

28 국정-검정-인정 교과서가 뭔가요?
30 교과서 집필에서부터 학생 손에 가기까지
32 대한민국 교과서의 변천사
35 우리들의 학습 친구, '디지털 교과서'

국정-검정-인정 교과서가 뭔가요?

글 박창언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교수·학습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각국의 역사·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고, 동일한 교과서 제도라도 그 운영 방식은 다르다. 교과서 제도에 대한 관점은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양극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박창언, 2017: 120).

대한민국 교과서 발행제

국가주도형은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및 채택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이고, 민간주도형은 국가의 관여가 최소화되어 민간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 각국의 교과서 제도는 이들 양극단 사이에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거나 다른 제도와 혼용하는 형태로 자국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 신교육이 도입된 후 1905년까지 정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는 없었고, 민간이 저술하거나 번역에 의한 것이었다(함종규, 2004: 42).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어서는 학교의 교육내용을 통제하기 위해 총독부에서 편찬 및 검·인정한 것에 따르거나 문부성에서 저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인정 교과서로 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의 기본 골격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인정도서심의위원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가 도입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정도서가 84%에 이르는 등 교과서 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2017년에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20년 1월에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의 인정 교과서 이외에 자유발행 적용 인정 교과서 조항도 신설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교과서 제도로 확대되는 경향을 지니면서도,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교과서가 혼재되고 있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그림1] 교과서 제도의 종류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

교과서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서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교육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정부 부처명이나 문구 등의 일부 변경이 있지만,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교과용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대해 용어의 정의에는 교과서의 저작이나 사용에서 국가의 관여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것은 공교육 체제에서 국가는 교육의 일정 수준이나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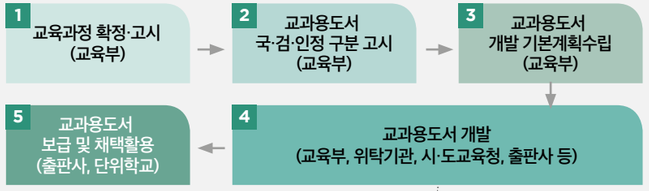
인정 교과서는 국·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교과서 사용에 관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다만 인정 교과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과 같이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발행 적용 인정 교과서로서 일정한 심사기준 등은 집필자나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보다 융통성 있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국·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들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박창언, 2018: 14의 내용 일부 수정).

[그림2] 국가의 관여방식에 따른 국·검·인정 교과서의 정의

교과서 집필에서부터 학생 손에 가기까지

교과서가 만들어져 학교에서 선택하여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기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는 [그림]과 같다.

[그림]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채택 절차



- **국정**: 교육부(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 편찬 → 교육부 심사통과
- **검정**: 출판사 등 민간 집필 → 교육부 공통기준과 교과별 기준 충족
- **인정**: ① 시·도교육청(위탁기관) 집필 →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통과
  ② 출판사 집필 →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통과
  ③ 민간 집필 → 국가에서 제시한 자체 검증 내용을 집필자 자체 검증

01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용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 작업은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되면 시작이 된다. 국가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교과별 교육과정)으로 되어있고, 각론에는 교과서 편찬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2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의 단계이다.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의 내용에 맞추어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별로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별로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교과는 지정된 종류의 교과서 개발 절차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게 된다.

03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단계이다. 교과용도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의 방향은 기본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국정, 검정, 인정도서별 중점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04 교과용도서 개발 단계이다. 교과용도서 개발 단계는 국정, 검정, 인정도서별로 상이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정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기도 하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는다.

검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도서로 고시한 과목에 대해 검정·실시 공고를 하고, 검정신청을 받아 일정한 기준(공통기준과 교과별 기준)을 충족한 도서에 대해 합격을 결정하고, 합격을 공고하게 된다.

인정도서는 시·도 교육청 자체개발 인정도서와 출판사 출원 인정도서, 그리고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교육청 자체개발 인정도서는 교육청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개발이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도서를 개발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교과서로의 지위를 부여한다. 출판사 출원 인정도서는 교육청에서 인정 실시 공고를 하고, 출판사에서 집필하며,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합격이 되면 교과서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자유발행 인정도서는 민간이 집필하되, 국가에서 제시한 자체 검증 내용에 따라 집필자가 자체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개발한다.

05 교과용도서 보급 및 채택활용 단계이다. 국·검·인정도서로 합격한 교과서는 출판사에서 인쇄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이 된다. 국정도서는 1교과 1종 도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육현장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검정과 인정도서는 학교에서 교과서선정위원회 소속 교사들이 3종을 선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검·인정 도서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심의한 후 그 순위를 정해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3단계를 통해 확정된 교과서는 NEIS를 통해 학생 수를 고려해 주문하게 되고, 학교에 교과서가 도착하면 학생들에게 배부되어 사용된다.

대한민국 교과서의 변천사

글 편집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인정교과서를 대용하는 형태로 유지해 왔다. 교수요목기를 거쳐 1~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개정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이는 교과서의 변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책형 교과서

교수요목기

1945~1954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어(국정) 교과서

01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교과용도서의 전면 신편 및 검·인정 이행

02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1교과 다 교과서 체제 마련

06

제6차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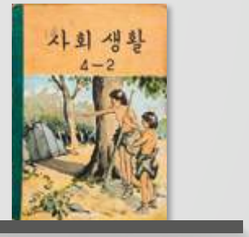
1992~1997
초등학교(3~6학년) 영어교육 실시로 초등 『영어』 교과서가 검정도서로 개발·보급,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발행

07

제7차 교육과정

1997~2007
~와(과)'의 대등 접속 조사로 양항을 이은 명칭의 교과서가 다수 출연

08



제2차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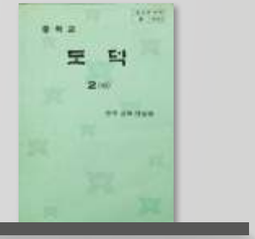
1963~1973
한글 전용 계획에 따라 모든 교과서에서 한자를 삭제하는 개편작업 실시

03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공포로 교과서 개편 (1종 교과서, 2종 교과서)

04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통합 교과의 교과서 등장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05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2009
초등학교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

09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2015
교과서 개발의 다양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의 출현

10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현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이과 통합교과 출현

11

촬영협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에듀넷·티클리어 등 교육용 콘텐츠가 가능한 학생용 교재이다. 2007년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에 따라 원형 개발과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제도 정비와 연구학교 중심의 시범 적용을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2018년부터 일반 학교에 보급되고 있다. 2020학년도 현재 초3~중3 사회·과학·영어/고등 영어 디지털 교과서 및 실감형 콘텐츠 등이 보급되고 있다.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디지털교과서와 함께하는 우리 학교>

우리들의 학습 친구, ‘디지털 교과서’

글 편집실

최근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에 풍부한 학습자료가 더해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샛별중학교(교장 배연옥)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였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나눔과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개 수업, 소규모 학습 모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나누기 위하여 전국 각 지역의 교사, 교육청, 해외에 있는 교육 관계자 등이 방문하여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기간에도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가정 학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기간에도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가정 학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가정 학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샛별중학교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그 안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순히 영상과 활동지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배연옥 교장은 “앞으로 4차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반이 구축되어 가면서 학생주도학습에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는 미래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최적화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사역량도 함께 신장 되어야 할 것이다.

샛별중학교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는 영상과 음성, 메모, 검색, 하이라이트, 위두랑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활동 중심 수업을 돕는다.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같은 콘텐츠를 디지털 교과서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각 단원에서 필요한 학습 내용을 더욱 실감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 디지털 교과서에 지리 단원에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지형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 간 듯한 느낌을 주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U-learning이 가능하다. 수업시간이 끝나도 쉬는 시간, 가정 학습, 외부활동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적합한 학습환경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과의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학생 수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 능력에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은 네트워크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접속을 의미하며 수업 중에 교사의 지식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생각으로 수업을 채우는 다양한 활동(실시간 협동 학습, 유튜브 활용학습, 검색, 온라인 투표, 퀴즈, 게임, 토론 등)에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는 학생 스스로 자료를 찾고 이를 분석하여 모둠원이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발표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생생한 수업

샛별중학교는 그동안 교과서를 사용해서 수업하던 활동을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하였다.

양성혁(사회과)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한 것을 검색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표시하고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더욱더 활동적이고 즐거운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양선환(과학과) 수석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하여 교사가 직접 제작한 학습지를 바탕으로 개념 영상 시청, 과학실험 관련 관찰, 심화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혜숙(영어과)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별 개별화 학습(원어민의 발음 듣기, 한글 번역 보기)을 통해 학생들 간의 영어 학습의 수준 차이와 학습 속도의 개인차를 극복하는 수업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와이파이망, 전용 교실) 구축하고, 나아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많은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를 잘 모르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많은 교사가 참여하는 디지털 중심의 학습 체계가 구성되면 다양한 수업사례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환경으로의 학습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해설하고
교육계의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더 넓고 깊게 소개합니다.

넓고 깊은 책 – 더 정

38 정책을 말하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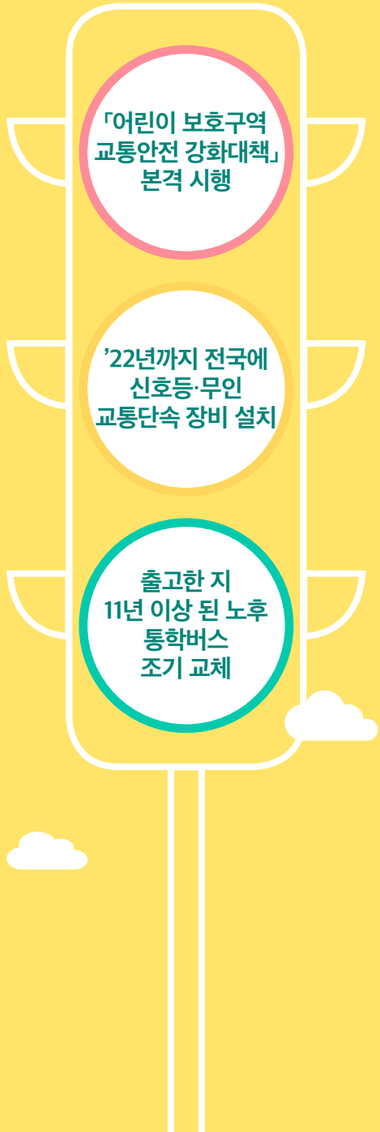
42 초점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육기부’

46 교육자치 시대
경기도교육청 ‘연계형 혁신학교’

49 이달의 교육뉴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글 이순이 편집장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는 많은 이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일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3개월이 된 지난 3월 25일 첫 시행에 들어갔다.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25일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 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

SCHOOL ZONE

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12만 원)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셋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적극적으로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시행한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아이의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넷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참여하는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섯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육기부’

글 황태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임연구원

교육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을 위해서는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된 시설과 자원을 가진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의 지역사회가 새롭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아이들과 함께해야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성장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밖의 교육성장 플랫폼이 바로 ‘교육기부’다.

프로그램 기부
기관 보유 시설·프로그램, 이를 가공한 교육자원 제공

장비/콘텐츠 제공
악기·실험기자재, 영화·미술작품 등 임대 또는 무상 제공

교육기부
Donation for Education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

활동 지원
학생 동아리, 체험활동 등에 차량, 보험 제공

재능 기부
강연, 멘토링, 지적 봉사 등

교육기부 모델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을 초·중등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교육기부 모델학교’

교육기부는 기존의 금전적 재화 기부를 넘어 기업·대학·공공기관·단체협회·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치원·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1년 교육기부센터로 교육부 지정을 받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교 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새롭고 다채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가는 기회와 경험을 지원하는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기부 수혜에 소외되고 있는 읍·면·도서벽지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부 모델학교가 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을 초·중등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위학교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선순환적 교육기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6차시 이상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모델학교에는 전라제주권 7개교(1,961명), 경상권 6개교(5,561명), 충청강원권 7개교(5,172명)가 참여하였다. 그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6개교에서 3만 8천 명의 학생들에게 1,400여 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표] 교육기부 모델학교 운영 현황

구분	모델학교 수	모델학교 프로그램 차시	모델학교 수혜인원수
전라제주권	7개교	109차시	1,961명
경상권	6개교	201차시	5,561명
충청강원권	7개교	240차시	5,172명

분야별 전문가·은퇴 교원 기부자로 참여

교육기부 모델학교에서 크게 진로직업체험, 기관탐방, 4차산업, 문화체험 등으로 구분하여 테마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도록 돕는데, 분야별 전문가 및 은퇴 교원 등을 포함한 개인 교육기부자를 발굴하여 모델학교에 지원한다.

모델학교의 운영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정규수업, 자유학년제, 동아리활동, 방과후 학습 등 학교의 사정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 교육기부 모델학교로 선정된 20개교는 소외지역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학교로 교내에서 배우기 어려운 4차 산업을 대비한 프로그램에 관한 수요가 많았고, 재단은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미래 기술, 드론,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등을 중점 테마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모델학교를 운영한 후에 사전-사후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들의 수업참여, 학생들의 교육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 등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도가 상승한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상담했던 교육기부자들은 조금씩 적응하며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요즘은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니까 아주 즐거워요. 선생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학교가 좋아요."

"형제가 없어 늘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 주고 함께 놀 수 있어 학교생활이 무척 신나요."

"기초실력이 부족해서 수업시간이 싫었는데 이제 곧 6학년 되니 방학 동안 열심히 해서 기초를 쌓아야겠어요."

교육기부 모델학교 운영에 교육기부 협력기관과 개인 교육기부자들이 함께 도움을 주었다. 개인 교육기부자들은 교육기부에 열의가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개인 교육기부자를 사전교육하고, 위촉장(감사패) 증정 및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수준 높은 교육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9년에 발굴한 개인 교육기부자는 총 141명이다(전라권 35명, 충청강원권 92명, 경상권 14명).

> 66
> 교육기부 수혜 학생들도 향후 기부자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는 점은 교육기부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 99

대학생 기부자들, 나눔은 성장의 또 다른 이름

그리고 매년 4천여 명의 열정 가득한 대학생들도 교육기부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사업은 2012년 377개의 동아리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570개로 늘었으며 대학 동아리의 꾸준한 참여 속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는 심사를 통해 매년 600개 이내로 선발하고 있다. 이들 동아리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문화예술체육, 과학수학기술 등 자신의 전공과 특색 등을 살린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학기 중 평일에 진행하는 '알락달락 행복한 교실'과 토요프로그램인 '함성소리', 그리고 방학 캠프 형태로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는 '쏙쏙캠프'가 그것이다. 1년 내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교육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교육소외지역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30개 교를 방문하여 교육활동을 펼쳤다.
대학생들은 교육기부 활동을 '성장'으로 표현한다. 교육기부를 통해 자신들도 수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게 됨을 느끼기 때문이다. 초·중학교의 담당 선생님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조율하고 직접 프로그램 내용을 하나하나 준비해나가는 것은 물론, 낯선 학교에서 활동하며 수혜 학생들과 친해지는 과정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천안백석중학교, 대학생 교육기부 '체인지(體仁智)'팀(방과후교실 알락달락)

수혜자→기부자 되는 선순환 구조가 장점

교육기부가 더욱 특별한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초·중·고등학생은 교육기부의 수혜자로, 교원·대학생·성인·시니어들은 교육기부자로 참여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부 수혜 학생들도 향후 기부자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는 점은 교육기부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교육기부는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 주민센터, 과학관, 대학교 등 지역 생활권의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다. 비록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자원의 규모는 다를지라도,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여서 특색에 맞는 모델학교로 특화해 나간다면, 교육기부가 하나의 정규교육 모델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에 꿈과 희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포스터

경기도교육청 '연계형 혁신학교'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로 연계하는 혁신교육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이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혁신학교를 처음 도입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계형 혁신학교는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혁신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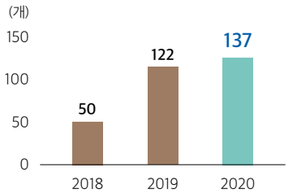
글 양지선 기자

12 _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봉사활동 등 마을 연계교육이 이뤄지는 포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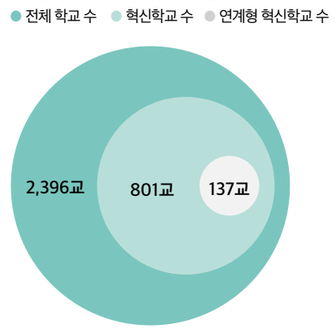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이 선보인 혁신학교는 공교육 개혁 모델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혁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다시 일반학교로 진급할 경우 교육과정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연계형 혁신학교 모델을 선보였다.

연계형 혁신학교는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으로, 동일 학교급 내 수평적 연계, 초·중·고 학교급 간 수직적 연계, 학교와 마을 간 연계 교육과정이 이뤄진다. 배움의 공간이 학교 담을 넘어 다른 학교로, 또 마을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림1] 연도별 연계형 혁신학교 수



[그림2] 경기도 내 학교 구성



마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한 배움과 삶의 연결

학교 간 연계 가능한 공동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학생자치회와 동아리 연계가 있다. 지역 내 학생들이 학교 축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학교 자치활동 경험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 후배들에게 팁을 전수하기도 한다. 동아리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형태로 이어지면서 배움이 끊기지 않게 된다.

마을 연계 차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고, 지역 내 공동 진로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마을교육공동체인 경기 꿈의학교를 활용해 학교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학교 밖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연계형 혁신학교들은 먼저 교사 공동 연수를 통해 혁신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연계형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연수뿐 아니라 학부모 통합 연수와 학생자치 활성화 등 교육공동체 전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학부모 공동 연수 및 학생자치 활성화 필요

지난 2017년 혁신학교 간 클러스터 정책으로 시작된 연계형 혁신학교는 신규로 지정된 혁신학교가 기존 혁신학교와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에서 출발했다. 이듬해부터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면서 50개교가 참여했고, 2019년 122개교로 확대됐다. 올해는 총 137개교를 연계형 혁신학교로 운영한다.

현재 연계형 혁신학교 수는 도내 혁신학교 수의 20%에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혁신학교는 연계형 혁신학교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윤순희 장학사는 "혁신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배움과 삶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라며 "연계형 혁신학교의 초기 단계로 초·중·고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담장을 넘어 모든 학교가 마을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삶의 현장에서 교육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연계형 혁신학교 운영 3년 차를 맞이한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과정을 디딤돌 삼아 본격적인 교육과정 연계에 나선다. 특히 지역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모여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3 _ 연계형 혁신학교 운영 실무 협의가 이뤄진 워크숍

학교급 간 수직적 연계: 포곡초-포곡중-포곡고

경기도 용인 지역에 있는 포곡초등학교(교장 전정선), 포곡중학교(교장 류성림), 포곡고등학교(교장 임우현)는 학교급 간 수직적 연계가 가능한 혁신학교로, 학생들이 학년을 진급해도 연결되는 혁신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혁신학교 도입 첫해인 2009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된 포곡고는 포곡초·중학교에 혁신교육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인 셈이다. 세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를 함께 열어 고등학생들이 회의를 이끌고 진행하는 방식을 보며 후배들이 배우도록 하고, 11월에는 연합문화예술공연을 기획하기도 했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한 예술공연에서 포곡초 학생들의 연극·뮤지컬 공연과 함께 포곡중 댄스동아리와 포곡고 사물놀이패가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지난해 포곡고 학생들은 포곡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단순히 학업을 다지는 차원을 넘어 선후배간 친근한 관계를 만들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동 학생자치회·연합문화예술공연 기획

세 학교는 경기 꿈의학교와 연계해 지역 공방에서 공동으로 도자예술 관련 진로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포곡고에서는 다문화 이웃을 위한 '우리 마을 사용설명서' 제작, 마을벽화 봉사 등 학생들의 삶과 교육 활동이 이어지도록 했다.

지난해 포곡초·중·고 혁신교육 관련 부장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각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과정을 함께 논의했다. 11월과 12월에는 혁신연구부장교사뿐 아니라 전체 교사가 함께 모여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연계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곡중 황보애(과학) 혁신연구부장교사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교육과정 내에서 연계가 되려면 교사들의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포곡고 손시내(국어) 혁신연구부장교사는 "올해 세 학교 간 소통을 이어가면서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더불어 마을에서도 학생들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DUCATION
NEWS

01 올해 수능, 2주 미뤄 12월 3일 시행

-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 16일 연기해 9월 16일로 변경
- 수능 앞서 6월, 9월 2차례 모의평가 실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2월 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조정하여 수능은 12월 3일(목)에 시행(2주 연기)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수)로 변경(16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공표된 일정(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18.8월)보다 수시모집 기간 3일 내외, 정시·추가모집 기간 11일 내외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에 앞서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오는 6월 18일 실시되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표] 2020년 대학 입시 일정

구분		기존	변경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 마감일		8.31.(월) / 8.31.(월)	8.31.(월) / 9.16.(수)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 마감일		11.30.(월) / 11.30.(월)	12.14.(월) / 12.14.(월)
수능	시행일	11.19.(목)	12.3.(목)
	성적 통지일	12.9.(수)	12.23.(수)
수시	원서접수기간	9.7.(월)~9.11.(금)	9.23.(수)~9.29.(화)
	합격자 발표	12.15.(화)	12.28.(월)
정시	원서접수기간	12.26.(토)~12.30.(수)	1.7.(목)~1.11.(월)
	합격자 발표	2.1.(월)	2.6.(토)

※ 수시·정시 등 대입전형일정은 대교협/전문대교협에서 4월 중 확정·발표 예정

EDUCATION NEWS

02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640억 원 예산 투입
- 수업료 결손분 50%, 정부·시·도교육청 1:1 분담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 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 총 64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 포용과 성장의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 17개 평생학습도시에 운영경비 총 5억 원 지원
- 소외계층 평생학습 접근성 및 미래역량 강화

[표] 2020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주제	주요 프로그램	비고
강원 춘천시	평생학습으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봄내(春川)	지역공동체 조성 프로젝트 외 3개 프로젝트	지역대학 네트워크 모형
대전 서구	꿈이 익어가는 학습도시, 서구	경력단절 여성의 학습-일자리 이음 지원 사업	지자체 자율 설정 모형
부산 북구	스마트한 기술로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도시 북구	시민 디지털역량 키우Go, 개인 미래역량 올리Go, 포용적 이웃愛 나누Go 프로그램	AI 및 미래 역량강화모형

교육부는 소외 계층의 교육 접근성 확대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67개 평생학습도시 중 61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광역 시도의 예비심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총 17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평생학습 수요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 학습 소외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인공지능(AI)과 미래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04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YEEP, 가상 창업 서비스 개시

- 시장분석, 가상 크라우드 펀딩 등 체험 기회 확대
- ‘창업체험교육백서’ 등 창업교육 정보 한눈에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YEEP(http://yeep.kr)가 다양한 가상 창업 체험 활동 기능을 추가하며 개편했다.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체험교육 플랫폼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분석,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 마켓 등 가상 창업 체험에 관한 기능이 추가되어 학생들이 창업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창업체험교육 관련 사업을 종합한 ‘창업체험교육백서’ 등 발간자료와 교수·학습자료, 홍보영상 등 그간 개발한 콘텐츠를 탑재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창업교육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05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 초등과정’ 개설

- 건강장애학생 수업지원 위한 안정적 시스템 마련
- 원격수업 전담교사가 온라인 수업 및 상담 지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인 ‘스쿨포유 초등과정(http://es.s4u.kr)’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스쿨포유’는 만성질환 치료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화상 수업,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여 출석을 인정받고, 학급게시판, 쪽지함 등에서 교과별 질의응답, 상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쿨포유’ 이용은 대상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입교가 결정되면 회원가입 후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06 교육부, 예술교육 전문 특수학교 설립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5일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는 중학교 9학급 총 54명, 고등학교 12학급 총 84명 규모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국공립 특수학교 총 9개교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총 17개교를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붕어쌤의 생활교육 특강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글 이우경 온양여자중학교 교사

코로나19로 선생님과 학생이 만날 수 없는 요즘, 충남 온양여자중학교 이우경 교사는 학급밴드를 통한 특강으로 아이들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 그중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글 한 편을 소개한다.

개학연기 후 네 번째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반 카톡방에서 "3월에 이렇게 집에 있어보기는 내 인생에서 처음이에요."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귀여워 혼자 웃으면서도 이런 경험이 샘의 30여 년 교직인생에도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흠칫 놀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온 어떤 일도, 어쩌면 나쁜 일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샘은 대학생 때 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책을 만났습니다.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이며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꼭 읽어보길 권합니다.

유태인인 빅터는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를 하루하루 견디며 3년을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 아내가 강제수용소에서 모두 죽고, 모든 가치를 파멸당한 상태에서 그는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체험 수기로 썼어요. 샘의 인생을 바꾼 대목은 바로 책의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어떤가? 인간은 환경에 대한 행동과 반응에 아무런 정신적 자유도 없단 말인가? (중략)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빼앗긴 상황에서 두 가지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한 조각의 빵에 달려드는 짐승들처럼 금방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선택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빵을 양보하고, 심지어 가스실로 끌려가며 죽지 않으려 애원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초연히 예수와도 같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 나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지요.

빅터는 "진정한 자유란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에 대한 자유이다."라고 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려나는 것(~로부터의 자유)보다, 비인간적이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져서 일상을 되찾는 것(코로나19로부터의 자유)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자가격리된 이웃을 돌보고, 그동안 못해 본 독서와 취미생활을 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나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코로나19에 대한 자유)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밤낮없이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방역하는 분들, 근근이 모은 돈을 동사무소 앞에 두고 가는, 가난하지만 인간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이웃,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을 희망으로 지탱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답게 살기를 선택한 분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푸르고 싱싱한 나무들처럼 살아갈 희망과 버틸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분명 편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샘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할까 봐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굴복하고 불안해하고 무기력해하는 것보다 지금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좀 더 나아가 이웃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와 행동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로부터의 자유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코로나19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차게 계획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실천해보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불분명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TV 앞을 떠나지 않으며 지내는 하루와 안녕하고, 이런 인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해주고 있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부모님들께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영화 <안네의 일기>와 <피아니스트>입니다.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모두 돌아가면서 느낀 점이나 가장 인상 깊은 장면과 이유에 대해 한마디씩 해보는 가족 토론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모두들 월요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진정한 눈뜸’을 암시해주는 재난의 서사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글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재난의 파국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수행한 「눈먼 자들의 도시」는 우리로 하여금 ‘평범함의 소중함’을 ‘바로 보게끔’ 해준다.

> 일상의 평범함이 자명하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BLINDNESS

재난과 문학

최근 우리는 자연적, 사회적 재난을 숱하게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순간을 빈번하게 맞고 있다. ‘재난’이란 뜻하지 않게 생긴 변고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불행한 사고를 뜻한다. 얼마 전 호주에서 큰 산불로 수많은 목숨이 사라져간 것이 자연적 재난이라면, 세월호 사건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 등은 인공이 가미된 사회적 재난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합쳐진 총체적 재앙이다. 이 혹독한 위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왜소함과 무력함을 가르쳐주고, 그럼에도 인간의 지혜와 용기로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포와 초조는 어느새 평범함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뀌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한없는 겸손임을 암시해준다.

카뮈의 「페스트」(1947)는 재난을 당하고서도 강인한 의지를 잃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담아낸 소설이다. 작가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저항임을 역설한다. 이 작품의 의미는 ‘페스트’와 싸우는 인간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이 펼쳐가는 악에 대한 저항과 인간들 사이의 공감 능력은 카뮈가 추구했던 문학 정신이기도 했을 터이다. 이처럼 작가는 재난의 원인을 인간의 과잉 욕망에서 찾음으로써 우리에게 반성적 사유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육체의 질병에서 정신과 영혼의 타락으로

사라마구의 장편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1995)는 살아 있는 것들의 욕망에 관한 극한의 드라마를 통해 무섭도록 생생한 리얼 판타지를 보여준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그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 기능공, 번역가, 기자 등을 거치며 삶과 문장을 충실하게 배웠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히지 않고 초자연적 요소까지 수용하는 거대한 상상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작가로 유명하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한 도시의 시민 거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 실명하면서 빠른 속도감으로 몰락해가는 인간 사회를 담아낸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한 남자가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눈앞이 하얘지면서 눈이 머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를 만난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실명하게 되고, 이제 집단 실명은 전염병이 되어 사람들에게 크나큰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준다.

정부는 사람들을 격리하여 전염 확산을 막아보려 한다. 남자를 치료한 의사의 아내는 눈먼 남편을 위해 자신이 실명한 것으로 속이고 격리시설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그녀는 군인들에 의한 살육과 악인들에 의한 약탈과 폭력이 얼룩진 세계를 목도한다. 육체의 질병은 어느새 정신과 영혼의 타락으로 몸을 바꾼 것이다. 그녀는 눈먼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을 탈출하여 돌아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먼 자들은 하나씩 시력을 회복하지만, 정작 그녀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눈이 멀고 볼 수 있는 세계와 눈뜨고도 못 보는 세계

이 탁월한 재난 소설은 ‘눈멂’과 ‘눈뜸’의 의미를 역전시키면서 우리에게 눈이 멀고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세계와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바로 ‘평범함의 소중함’일 것이다. 우리는 나날의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휴식을 한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자명하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눈 밝은 이들에게만 보이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전한다. ‘진정한 눈뜸’을 암시해주는 우뚝한 재난의 서사가 아닐 수 없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버렸다. ‘봄(spring)’은 원래 ‘봄(seeing)’이 아니던가. 이 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김수영은 「공자의 생활난」(1945)에서 “이제 바로 보마”라고 했고, 랭보도 현상 너머를 볼 줄 아는 ‘견자(見者)’가 되고자 하지 않았던가. 재난의 파국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수행한 「눈먼 자들의 도시」는 우리로 하여금 ‘평범함의 소중함’을 ‘바로 보게끔’ 해준다. ‘눈멂’은 ‘눈뜸’의 반대말이 아니라, ‘진정한 눈뜸’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알아가게끔 해주면서 말이다.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③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점차 늘어나는 교사 유튜버, 저작권침해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자!

글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 강사

학기 초를 맞아 많은 선생님이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지에서는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학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실 주>

① 수업목적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② 학교 홈페이지의 관리와 폰트저작권
③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36만 구독자를 확보한 교사이자 래퍼인 유튜버 달지 선생님은 2019년 10월의 수익을 공개했다. 25만 6천 원으로 이마저도 도와준 스태프들과 나누니 실제 수입은 10만 원도 안 된다고 했다. 달지 선생님은 수익이 적은 원인이 저작권 문제라고 했다.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커버송이 주요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은 유튜브 활동 덕분이라고 했다. 학생들과 더 가까이 지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달지 선생님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한다.

YOUTUBE

> 66
> 채널의 종류, 유튜브의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로서의 기본 업무와 품위유지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
> 99

교육부의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

이러한 흐름에 대비해 교육부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934명이 유튜브 활동을 한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튜브 활동 방향의 핵심은 2가지다.

채널의 종류, 유튜브의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로서의 기본 업무와 품위유지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공립, 사립 및 계약직 교사를 포함해서 같다. 사실 모든 교사는 이 2가지를 잘 지키고 있다. 이 규정은 유튜브를 포함한 네이버, 카카오 등 다른 채널도 같이 적용한다. 이 활동은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이라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수익 창출 시 겸직 허가의 문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천 명 이상과 수익 창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총 4천 시간 이상의 시청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후 유튜브 수익 창출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위 네이버TV는 채널별 구독자 300명 이상, 총 재생 시간 300시간 이상으로 수익 조건이 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수업이나 기타 활동을 유튜브 등에 올릴 때는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촬영, 업로드를 위해 각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 활동사례 공유 등의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활동은 장려한다. 향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유튜브 공모전도 늘어날 것이다.

> 그동안의 학교를 상대로 한 다양한 법정 분쟁이 유튜브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튜브의 저작권 문제 해결방법

유튜브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1분에 400시간이 훨씬 넘는 영상물이 올라간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폭력적이거나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은 저작권 문제와 관계없이 제삼자의 신고로 삭제와 제재 등의 조처한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을 때만 조처한다. 유튜브가 삭제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수익 권리를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 방식에 동의한 저작권자에게는 광고수익(일부 통계자료 포함)을, 동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광고수익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를 발견하면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신고를 90일 동안 연속해서 3번 받은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다. 실제로 2018년 구독자 70만 명의 인기 유튜버는 일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방송을 하다가 채널이 삭제되었다. 10년 넘게 유지한 채널의 모든 정보를 삭제당했는데 자신의 직장이 저작권 문제로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이다. 이런 2가지 방식은 대부분 음악, 영화, 방송, 스포츠,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튜브 내의 광고수익 보상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침해한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분이 노출된 교사, 유튜브 활동에 주의 필요

유튜브에서 많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제 형사고소, 민사소송은 많지 않다. 해외사이트인 유튜브가 침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고 소송을 위한 최소의 정보도 확보하기 어렵다.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유튜브 내 최고의 조치인 3진 아웃을 통한 채널 삭제밖에 할 수 없다.

반면에 교사는 재직 중인 학교와 학생들이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게 된다. 저작권침해를 했거나 유명상표와 비슷한 채널명을 사용해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면 곤란한 처지를 당할 수 있다. 그동안의 학교를 상대로 한 다양한 법정 분쟁이 유튜브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확인 사항

평소 필자가 저작권법상 가장 이상적인 유튜버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한 구독자 30만이 넘는 한 유튜버가 있다. 그는 실시간 방송을 자주 했다. 2018년 가을 새벽에 1천 명의 구독자들과 애플 아이폰 신제품 발표 당일 실시간 방송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저작권침해로 신고를 당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음원이 문제였다. 벌칙으로 90일간 실시간 방송을 금지당했다. 그는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단 1차례의 저작권침해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 교사들도 때에 따라 학생들과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법 25조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수업이 가능한 학교 수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튜버 교사는 자신의 독창적인 수업자료가 아닌 타인의 자료를 가지고 하면 일반 저작권법에서 허용한 범위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저작물 사용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지도하는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유튜브 활동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는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대학교처럼 교육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날이 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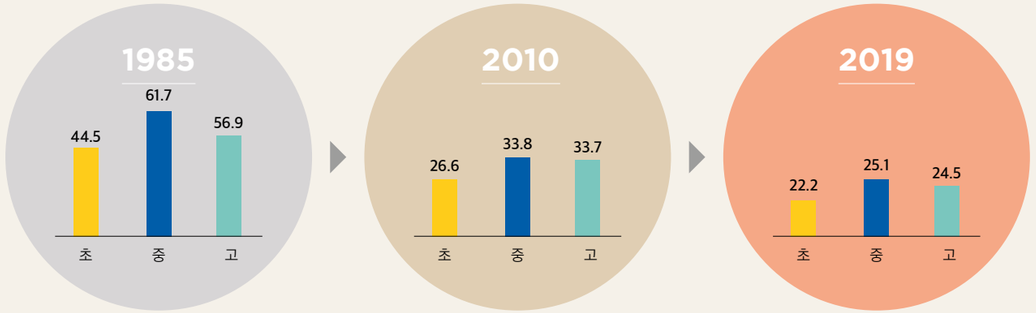
유튜브에 출연하는 자신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교실 속 학생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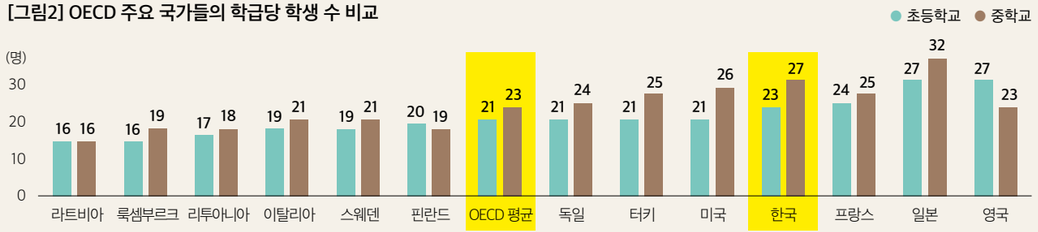
글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2019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콩나물 교실'이라는 용어가 한창 거론되었던 1985년의 통계치와 비교한다면 모든 학교급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림1]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그림2] OECD 주요 국가들의 학급당 학생 수 비교



'콩나물 교실'이란 지나치게 많은 학생이 한 반에 배정되어 교실의 수용인원을 크게 넘어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공식적으로 '과밀학급'을 말한다. 지금은 우리의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상용어 수준이었고, 2000년도 이전까지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단어였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 [그림1]에 의하면 2019년 4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2.2명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보다 2~3명 많은 25.1명과 24.5명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치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제시된 수치가 '전국 평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2019년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5명 상회한 반면, 강원도는 17.6명으로 전국 평균에 4.6명이나 못 미친다. 또한, 2019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2.6명이지만, 같은 해 서울 내에서도 36~40명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학급이 88개나 있었던 것처럼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지역별, 학교별 사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변화를 보면, 초등학교는 2010년 26.6명에서 4.4명(16.5%), 중학교는 33.8명에서 8.7명(25.7%), 고등학교는 33.7명에서 9.2명(27.3%) 각각 감소하였다. 감소율은 학교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초등학교는 2013년까지는 감소 폭이 비교적 컸던 반면, 그 이후부터는 매우 완만한 감소율을 보인다. 그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해당 기간에 특별히 감소 속도의 변곡점을 찾기는 어렵다. 2019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콩나물 교실'이라는 용어가 한창 거론되었던 1985년의 통계치와 비교한다면 모든 학교급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OECD에서 발행하는 「2019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그림2]에서는 OECD 회원국들이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제출한 국가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한 30개 회원국 중에서는 룩셈부르크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5.9명으로 가장 적었고, 중학교의 경우 라트비아가 15.5명으로 가장 적었다. 반대로 초등학교의 경우 칠레가 30.5명, 중학교의 경우 일본이 3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OECD 전체 평균인 21.2명보다 2명 정도 많은 23.1명으로 22위를 기록했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인 22.9명을 크게 상회한 27.4명을 기록해 30개 국가 중에서 하위권(25위)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FOCUS 01

‘긴급돌봄’이 이뤄지는 현장 속으로

김진원 명예기자

3월 16일, 평상시라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하였다.

경기 운산초등학교는 기존 돌봄교실과 긴급돌봄교실을 분리하여 운영하며, 긴급돌봄교실은 1-2학년과 3-6학년 두 개로 나누어 각 반에 두 명씩 투입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사가 두 명씩 투입되는 이유는 학생 중 발열이 있을 경우 즉시 하교를 안내하는데, 귀가 전까지 함께 보호할 격리실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아침에 출근하여 교사용 마스크를 수령하고 긴급돌봄교실로 이동했다. 체크리스트와 학생 출석부를 챙긴 후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체온계를 들고 중앙현관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오늘 온 학생들은 체온이 모두 정상이었다.

내가 맡은 3-6학년은 총 7명이 돌봄교실에 참여했다. 시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수칙 교육으로 진행했다. TV 모니터에 코로나 예방수칙 그림을 보여주며 교실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식사 전 등 수시로 손을 잘 씻고 소독할 수 있게끔 안내했다. 오늘 오신 선생님과 함께 오전에는 독서활동을, 오후에는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기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오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책을 이리저리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만히 지켜보니 책을 잘 보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 할 수 없도록 띄엄띄엄 앉고, 책만 조용히 몇 시간을 보기에는 내가 생각해도 지루할 것 같았다. 책을 읽고 토론하면 좋겠지만, 감염 우려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이 애매하게 느껴졌다. 어떤 아이는 책을 덮고 종이접기를 시작했다.

점심은 인근 업체에서 도시락을 주문하여 진행되었다. 한 학생에게 “도시락이 맛있어, 급식이 맛있어?”라고 묻자, “급식이 더 맛있어요!”라는 대답에 빨리 개학을 해서 친구들과 식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며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우선, 아이들은 반복된, 고립된 생활에 지쳐있었다. 교실의 다양한 교구, 놀이도구도 사용이 어렵고, 긴급돌봄교실 외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을 뿐 다른 특별실도 감염 우려로 이용할 수 없다. 더구나 학기 초여서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코로나19에도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공동체 모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FOCUS 02

‘북 드라이브 스루’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은아 명예기자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교육청 구미도서관은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로 ‘북 드라이브 스루’ ‘전자도서관 콜 등업’ 그리고 ‘24시간 무인도서반납기’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때, 책읽기를 독려하며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소독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도서관을 방문해 대출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도 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후 도서관에 전화하면 바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빠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었다. 1인 5권, 14일간 대출 가능하다. 4인 가족은 최대 20권을 빌릴 수 있다.

한송이 씨는 “서가에서 도서대출 할 때는 빌리고 싶은 책이 대출 중이면 다른 책을 바로 눈으로 확인해서 대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빌릴 수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고 말한다. 학부모의 인터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도서관 직원은 인터넷으로 도서조회를 하면 대출 가능한 도서를 알 수 있다며 서둘러 안내했다.

김미성 구미도서관 문헌정보과장은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줄 알고 휴관 조치를 시작으로 도서관 내 서가 확보와 서고 정리를 우선으로 진행했는데 장기화하면서 걱정이 됐다.”라며 “내부적으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착안해 ‘북 드라이브 스루’를 시도해보자는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한다.

첫날 10권 대출을 시작으로 점차 200권 300권 늘어났다. 대출 단계가 복잡해 직원들은 힘이 들지만, 책을 전달할 때 웃으면서 뛰어다닌다. 김 과장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서로 이겨내는 모습이 감동됐던 거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서로 응원해주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수미 사서에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도서대출에서 느끼는 소감을 물었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북 드라이브 스루나 택배 서비스 같은 방법들이 생겨서 참 좋아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쉽게 전자도서관에도 많이 가입하고, 추천도서를 더 찾게 되면서 도서관이 학교수업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얼른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FOCUS 03

선생님들, 수업 교재 만들 때 여기 활용하면 좋아요!

양정미 명예기자

교사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교재를 연구하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한다. 한 시간 수업을 위해 프리젠테이션 및 한글 문서, pdf 파일을 활용하여 색다른 교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학습 교재 혹은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할 때 활용하기 좋은 몇 가지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플래티콘 무료 아이콘 사이트 www.flaticon.com

이 사이트는 많은 아이콘, 벡터, 일러스트 데이터가 축적된 국제적인 사이트이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사용할 때 화면에 장황한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몇 가지의 아이콘을 활용하여 화면을 깔끔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해당 사이트 내에 있는 검색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콘의 키워드(영어)를 입력하면 그에 관련한 다양한 아이콘이 제시된다.

픽사베이 상업용 무료이미지 pixabay.com

이 사이트는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이미지를 제공하는 곳이다. PPT를 제작할 경우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1,188,454개가 넘는 무료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FOCUS 04

우리는 대한민국 '독도의용수비대'

이명주 명예기자

문태고등학교 학내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집현전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행동으로 나서 배움을 얻고 3월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및 교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학생 생활 중심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의 혁신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사된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 1956년 12월 30일에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에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는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며, 학생들이 중심에 서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